성동구 성수동

김수현, 쿠팡플레이 새 드라마 '어느 날'로 복귀… 어떤 연기 보여줄까


배우 김수현

대부분의 사람들은 김수현이 2007년 MBC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에 출연하면서 배우로 데뷔했다고 알고있다. 하지만 사실 그는 2003년 무렵 방영한 MBC '신비한TV 서프라이즈'와 'TV특종 놀라운 세상'에 재연배우로 출연하면서 얼굴을 알렸다.

단역으로 연기 생활을 시작했던 김수현이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 자를 각인시킨 시기는 2011년 방영한 KBS2 드라마 '드림하이'에서 첫 주연을 맡으면서부터다. 그는 극 중 순박한 시골 소년인 송삼동 역을 맡으며 다양한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었다. 김수현의 인기에 힘입어 방영 당시 '드림하이'는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드림하이'를 통해 주연으로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김수현은 2012년 시청률 40% 이상을 기록한 MBC 드라마 '해를 품은 달'을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된다. 그는 '해를 품은 달'에서 로맨틱한 조선시대 가상의 왕 '이훤'을 연기하며 여성 팬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를 통해 '훤앓이' '수현앓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고 이와 함께 '김수현 신드롬'이 시작됐다.

김수현의 인기는 같은 해 개봉한 스크린 첫 데뷔작인 영화 '도둑들'까지 이어졌다. 약 1300만명의 관객을 동원한 '도둑들'은 마카오 카지노에 숨겨진 희대의 다이아몬드 '태양의 눈물'을 훔치기 위해 한 팀이 된 한국과 중국 10인의 도둑들이 펼치는 범죄 액션 드라마다.

극 중 잠파노 역을 맡은 김수현은 한국 도둑 멤버 중 막내로 누구에게도 쉽게 기죽지 않는 당돌한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짝사랑하는 예니콜(전지현 분)에게 끊임없이 접근하는 남자들을 견제하면서도 막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며 긴장감 넘치는 작전에 활력을 불어넣어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갤러리아포레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2013년에는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에서 북한 최고의 엘리트 공작원 '원류환' 역을 맡아 인기를 이어갔다. 이 영화로 그는 약 700만명 동원기록을 세우며 스크린에서도 명실상부한 흥행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이듬해 김수현은 2014년 그의 필모그래피 역사상 최고 드라마라 할 수 있는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출연해 그야말로 톱스타 반열에 오르게 된다. 도둑들에서 함께했던 배우 전지현과 호흡을 맞춰 국내를 넘어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아시아로 인기를 넓히며 한류스타로 발돋움했다. 2015년엔 KBS2 드라마 '프로듀사'로 KBS 연기대상을 수상하며 대한민국 대표 남자 배우로 거듭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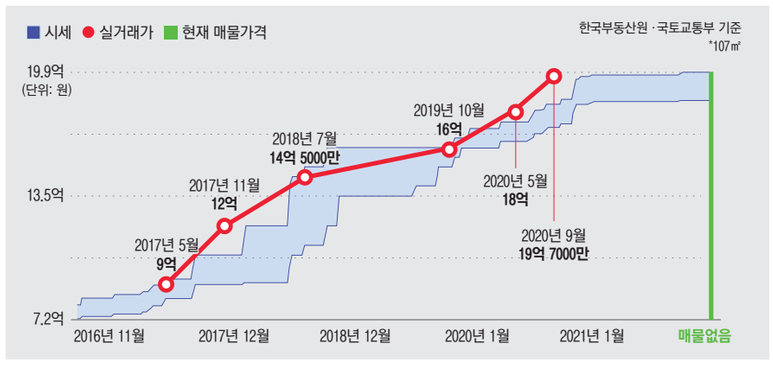
2019년 현역으로 입대해 건강하게 군복무를 마친 그는 '프로듀사' 이후 지난해 6월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로 복귀해 화제를 모았다. 버거운 삶의 무게로 사랑을 거부하는 정신병동 보호사 문강태 역을 맡아 캐릭터의 디테일을 살린 섬세한 열연으로 시청자들을 몰입시켰다.

한편 김수현은 작년 종영한 tvN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후 오랜만에 연기로 돌아온다. 쿠팡플레이의 첫 오리지널 시리즈 '어느 날'에서 주연을 맡았다. '어느 날'은 평범한 대학생에서 하룻밤 사이 살인 용의자가된 김현수(김수현 분)와 진실을 묻지 않는 밑바닥 삼류 변호사 신중한(차승원 분)의 치열한 생존을 그린 8부작 하드코어 범죄 드라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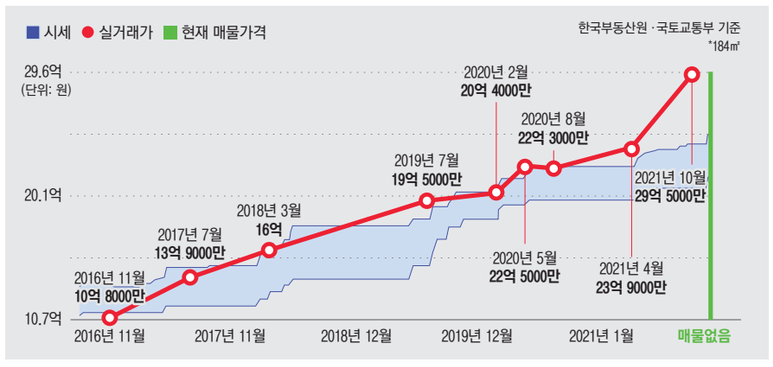
특히 '사이코지만 괜찮아' 다음으로 김수현이 선택한 작품이라는 점과 2018년 '화유기' 이후 3년 만에 드라마로 복귀한 차승원과 조합을 이루며 '열혈사제'로 연출력을 인정 받은 이명우 감독이 의기투합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늘 밤 12시(자정)에 첫 공개되는 '어느 날'에서 김수현이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기대감이 모인다. 이동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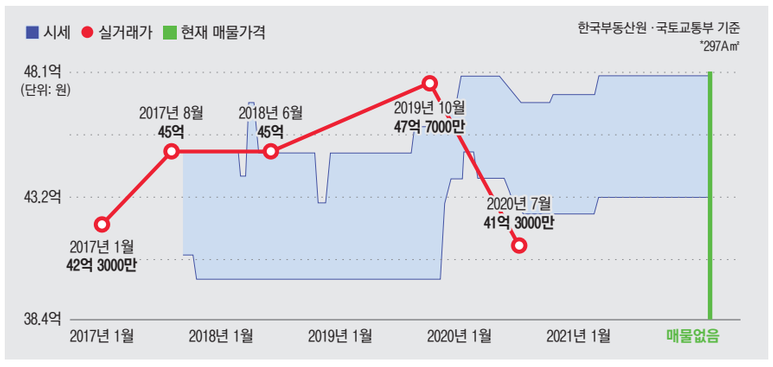
성수동양아파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479-1



서울숲힐스테이트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843



갤러리아포레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6



양승함 현)연세대학교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양승함 연세대 사회과학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는 연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워싱턴대 잭슨국제대학원에서 러시아 및 동구지역 연구과 국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북한의 대유엔 정책이란 주제의 논문으로 졸업한 워싱턴대에서 소련 미하일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권력승계 문제를 연구했다. 1993년 연세대 조교수로 임용된 그는 한동안 러시아 정치 문제에 집중했으며 이후 국내정치로 연구 영역을 확장했다. 2003년에는 연세대 리더십센터 소장을 맡아 이승만·박정희·김대중 등 3명의 대통령 사료집 10권을 내기도 했다.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장과 행정대학원장, 사회과학대학 학장 등 다양한 보직을 거치며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2007년에는 한국정치학회를 이끌며 부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한국학 세계학술대회를 개최하는 성과를 냈다.



공존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중심의 미래 산업 생태계가 조성은 물론 매력적인 주거·상업·문화 복합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도심융합특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첨단산업시설과 주거·문화·상업이 공존하는 복합혁신시설 구축 등 광역거점 조성을 위한 실행전략을 구체화하고, 사업지구 내 산업시설 등의 이전 협의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는 부산시에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지원하고 수립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도심융합특구조성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은 "부산 도심융합특구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부산시와 함께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형준 부산시장은 "센텀2지구의 도심융합특구 지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부산 미래 먹거리가 확보되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긴밀한 협조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도심융합특구가 부산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고, 미래와 청년의 꿈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남궁민 현)탤런트



남궁민은 대학교 2학년 때 MBC 공채 탤런트에 지원해 최종 면접에서 탈락했지만 이후 1999년 KMTV 뮤직스타 선발대회에 출전해 VJ대상을 받으며 연예계에 입문했다. 그는 광고 모델, 영화 단역 등을 맡다가 2001년 영화 '번지점프를 하다'에 조연으로 출연하며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영화 '나쁜남자' '비열한 거리' '뷰티풀 선데이' 등에서 주·조연급 연기자로 도약했다. 이후 2002년 방영된 SBS 시트콤 '대박가족' 출연에 이어 '장미울타리' '금쪽같은 내새끼' '어느 멋진 날' '부자의 탄생' '내 마음이 들리니' '구암 허준' '로맨스가 필요해' '냄새를 보는 소녀' '리멤버-아들의 전쟁' '검은 태양' 등 다양한 드라마에서 꾸준히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높은 인기를 누렸다. 지난해에는 드라마 '스토브리그'에서 백승수 단장 역으로 출연해 2020 SBS 연기대상을 수상하며 데뷔 19년 만의 첫 대상을 거머쥐었다.



최동훈 현)영화감독



최동훈 감독은 서강대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영화아카데미에서 영화 연출을 전공했다. 그는 서강대 재학 시절 영화 동아리에서 관련 공부를 하면서 영화에 흥미를 가지기 시작했다. 이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와중에도 영화 아카데미를 다니면서 영화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다. 감독 데뷔 전까지 그는 영상원에서 실습생으로 일하면서 영화감독에 대한 꿈을 키웠다. 그러다 2000년, 임상수 감독의 영화 '눈물'의 조감독으로 영화판에 첫 발을 내디뎠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04년, 그가 직접 각본을 쓴 영화 '범죄의 재구성'이 흥행에 성공하며 신인감독으로서 작품성과 흥행성 둘 다 잡으며 주목받았다. 이후 연출한 '도둑들'과 '암살'이 1000만 관객 이상을 모으며 '두 작품 연속 천만 감독'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다. 현재 그는 소지섭, 김우빈이 주연인 영화 '외계+인'을 준비하고 있으며 내년 개봉을 앞두고 있다.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센텀2지구,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메가시티 핵으로 육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국토교통부는 부산시가 제안한 센텀2도시첨단산업단지(센텀2지구)가 제38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로 선정되었다고 24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대도시의 도심에 범부처 지원을 집중하여 산업·주거·문화 등이 집약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센텀2지구는 약 191만㎡ 규모로 해운대구 반여동 일원의 전통산업시설과 미개발지로 구성된 지역이다. 이곳은 동부산권 중심지인 센텀시티, 해운대 신시가지와 인접해 풍부한 주거·상업·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며 교통편의 경우 도시철도 4호선, 반송로, 고속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아울러 센텀2지구에는 창업지원, 각종 규제 완화 등 도심융합특구의 다양한 혜택을 바탕으로 창업기업과 기존기업이



부산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위치도 국토부

제주 최초 대규모 단지 제원아파트 재건축 진행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는 24일 도내 최초의 대규모 아파트인 제주시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연동 251-16번지 일원에 위치한 제원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5층, 656가구 규모로 1979년 준공된 이후 40년이 넘었다. 이에 도는 2016년 9월 안전진단을 시작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왔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지난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 통과됐다. 따라서 이달 24일 총 3만5181.6㎡의 면적이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됐다.

고시에 따르면 새로 짓는 제원아파트는 전체 11개 동,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되며 기존 656가구보다 44가구가 늘어난 700가구로 지을 예정이다.

특히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을 최대한 확보하고 조성할 예정이며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공공기여 방안이 계획에 다수 포함됐다.

앞으로 조합 설립, 사업시행 인가, 이주·철거·착공, 준공인가 등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 절차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제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지형도면 고시문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도정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토지특성 일괄검증 시스템 구축… 디지털행정 박차

경기도 광주시

경기 광주시는 개별주택 및 개별지 토지특성 자료 정비를 위해 부서 간 협업으로 '개별토지특성 일괄검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한 '개별토지특성 일괄검증 시스템'은 공간정보시스템(GIS)에 토지특성 조사에 필요한 레이어(용도지역·지구 등)를 활성화 한 후 원클릭으로 일필지 토지특성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시는 시스템 구축으로 개별주택가격 토지특성의 정확성을 높이고 작업시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그 결과로 개별주택·개별지 토지특성 불일치자료 1401호를 정비했다.

신동헌 시장은 "내년에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별주택·개별지 토지특성 자료 중 일단지 토지정비계획을 추가 수립해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